

산재노동자 7명중 1명 또 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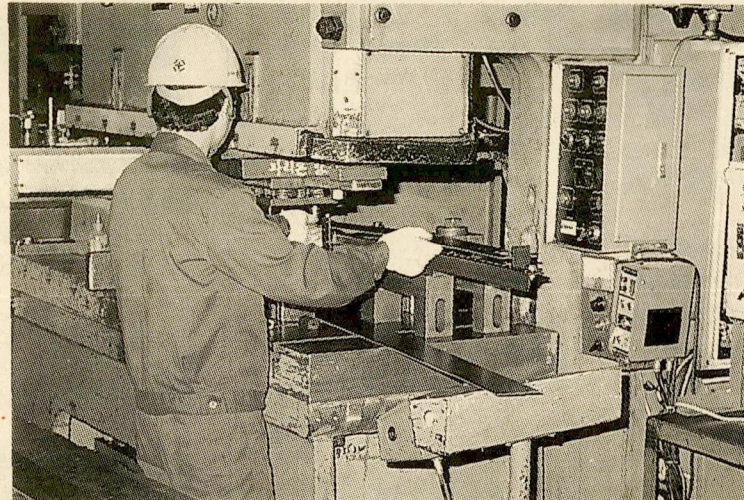
중복재해율 15%, 지난해 7만9백50명 중 1만9백40명

산재노동자 7명중 1명은 다치고 또 다치는 중복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가운데 중복재해의 비중이 약 15%를 차지하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91년 12만8천1백69명 중 1만6천4백78명(12.86%), 93년 9만2백88명 중 1만2천7백3명(14.07%), 95년 7만8천34명 중 1만1천2백88명(14.47%), 96년(잠정집계) 7만9백50명 중 1만9백40명(15.42%)으로 나타나 재해율 감소에 반해 중복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복재해는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 노동자나 건설 노동자, 외국인노동자에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88년 D중소업체에서 보일러 폭발사고로 오른쪽하퇴부를 절단한 김 모(45세, 장해 3급)씨는 봉제기술을 배워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다 94년에 오른손을 또 다시 부상당했다. 또 87년 S인쇄업체에서 처음 산재를 당한 백모(38세)씨는 90년 7월 재취업한 영세 인쇄소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지난해 2월에도 K업체에서 사고로 무려 3번이



다치고 또 다치는 중복재해는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유해·위험작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산재를 입었다. 즉 재해율이 높은 유해위험작업이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고를 당해 노동력을 일정하게 상실하고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거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함으로써 더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된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중복재해는 단순히 재해가 거듭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재

노동자에게 노동력 또는 생활력의 상실 정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처음 재해를 당해 5급의 장해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다시 재해를 입을 경우에는 대개 4급, 3급, 그 이상의 가중장해 판정을 받게되고 정도가 심하면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면서 “다시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본인

연도별 산업재해 및 중복재해 발생현황

(단위: 명)

	'91	'92	'93	'94	'95	'96
발생 총계	128,169	107,435	90,288	85,948	78,034	70,950
중복 재해	16,478	14,456	12,703	12,353	11,288	10,940
중복재해비율(%)	12.86	13.46	14.07	14.37	14.47	15.42

노동부 「'95 산재보험사업연보」 근로복지공단 96 전산자료

의 안전의식이 앞서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 이호승 산안 본부장은 “사고가 나고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작업공정에서 2차, 3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해노동자가 재차 사고를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소업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는한 이러한 중복재해를 줄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